



# 수요 급증하는 동남아 기계류 시장

홍석일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재무관리

산업 구조 고도화, 자본재 산업 육성과 기계류 산업의 무역 수지 개선이라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동남아 기계류 시장의 적극 공략이 필요하다. 이 동남아 기계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① 보다 현지 동남아 시장에 밀착된 사업 전략의 추구, ② 우리 기업들의 자기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③ 수출 및 현지 투자 진출의 적극 추진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의 잦은 개최를 통한 한국 붐의 조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불 수출 자금 등 금융 지원의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도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기관인 WEFA Group에서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2000년까지 개발 도상국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그 중심 동력은 동남아에서 나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는 아세안(ASEAN) 6 개국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 3 개국과 미얀마를 합친 10 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동남아 지역은 이데올로기와 경제 개발 노선의 차이로 두터운 장벽이 내부적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는 대외 지향적 공업화를 개발 전략으로 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수입 대체 자립 경제를 개

발 전략으로 하는 인도차이나 국가들 및 미얀마의 양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냉전 구조가 와해되면서 동남아 지역에도 개방·개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인도차이나 지역은 이데올로기와 민족 문제를 둘러싼 전쟁터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패배는 전체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가져온다는 이른바 도미노이론이 팽배하였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동남아 전체의 공산화를 우려했던 과거는 흘러가고 오히려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배우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미얀마가 아세안 국가들이 취했던 대외 지

향적 공업화로 개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기계류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동남아 경제의 부상

최근 동남아 각국의 경제 동향을 보면 경제적 활력으로 넘쳐 있다. 각국 정부들이 경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가들은 현지의 유리한 생산 여건, 방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공사가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으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도회지로, 공업 단지로 이동하는 인력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다. 흡사 70~80년대 한국, 대만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 이러한 다이나믹한 모습 속에 동남아 경제의 빠른 부상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과는 눈부실 정도이다. 8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공업화를 추진한 아세안 국가들은 87년부터 94년까지 연

평균 7.4%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공업화는 선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상품의 시장 점유율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아세안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87년 4.3%이었으나, 93년에는 7.3%로 크게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중 한국 상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4.2%에서 2.9%로 감소한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 유럽 시장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고도 경제 성장세는 금세기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1995~96년에도 7.5%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대외 부문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부문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나라별로 보더라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까지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인도차이나와 미얀마도 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운용에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도입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92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매년 8%를 넘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베트남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이 최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과 관련된 최초의 회의가 관련 10 개국의 공무원,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94년 5월 말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서기 2000년 이후의 동남아시아 비전'이라는 문서에 합의·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바로 동남아 공동체 결성 구상이다. 즉, 베트남 등 4 개국이 아세안에 조기 가입하고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아세안을 보다 규모가 큰 지역 블록으로 확대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동남아 10 개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화 되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은 더욱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내 시장이 커지고 상호 경제 협력의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국가들간의 경제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국가들간의 교역 규모는 91년 11억 3,400만 달러에서 94년에는 26억 5,500만 달러로 3년 사이에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매년 32% 이상 급증세를 보인 셈이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이 직접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투

<표 1> 동남아 시장 현황(1993년)

	국토 면적 (천 km <sup>2</sup> )	인구 (천 명)	GDP 규모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무역 규모 (백만 달러)
<b>ASEAN 6 개국</b>	3,069.5	336,930	4,429	1,315	434,666
말레이시아	330.0	19,239	644	3,347	92,632
브루나이	5.8	275	41	15,052	4,974
싱가포르	0.6	2,833	551	19,449	159,464
인도네시아	1,920.0	189,456	1,428	754	65,176
태국	513.1	58,584	1,213	2,071	83,176
필리핀	300.0	66,543	552	830	29,244
<b>인도차이나 3 개국</b>	743.8	84,728	165	195	9,713
라오스	236.8	4,606	13 <sup>1)</sup>	282 <sup>1)</sup>	474
베트남	327.0	70,902	128	181	8,412
캄보디아	180.0	9,220	24 <sup>1)</sup>	260 <sup>1)</sup>	827 <sup>1)</sup>
미얀마	680.0	44,613	485 <sup>1)</sup>	1,087 <sup>1)</sup>	1,890
<b>합계</b>	4,493.3	466,271	5,079	1,089	446,269

자료: 아시아경제연구소, 「아시아동향년보」, 1994.

ESCAP, *Population Data sheet*, 1993.

IMF, *DOTS Yearbook*, 1994.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Jan 1995.

EIU, *Country Report & Country Paper*, 각호.

IMF, *IFS Yearbook*, 1994.

주: 1) 추산치.

자가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작년 베트남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액을 보면 총 57 건에 8억 3,43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총투자 유입액의 22.5%에 이르는 것이다.

■ 기계류 수요 급증

동남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기계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별로 제조업, 건설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최근 투자 실적 추이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80년대 말부터 투자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5~86년 양 기간에 걸쳐 투자 실적

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87년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80년대 말 이후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85년 태국의 투자 증가율은 -3.7%, 86년에는 -0.7%로 연속 2년에 걸쳐 마이너스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87년부터 태국의 투자는 폭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91년까지 5 개년 연속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를 지나 작년부터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80년대 후반의 높은 투자 신장세가 주로 외국인 투자에 기인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아세안 투자는 국내 기업 및 정부 투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80

<표 2> ASEAN 각국의 투자 추세 및 전망<sup>1)</sup>

	단위 <sup>2)</sup>	1984	1989	1994	2003	연평균 증가율(%)		
						1985~89	1990~94	1995~2003
말레이시아	억 링기트 (1978년)	198	212	421	1,010	1.4	14.7	10.2
싱가포르	억 싱가포르달러 (1985년)	187	185	323	1,117	-0.2	11.8	14.8
인도네시아	억 루피아 (1983년)	183,000	285,700	406,200	833,700	9.3	7.3	8.3
필리핀	억 페소(1985년)	1,446	1,462	1,961	4,824	0.2	6.0	10.5
태국	억 바트(1988년)	3,466	5,863	10,441	23,942	11.1	12.2	9.7

자료: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Jan 1995.

- 주: 1) 국민 계정상의 총고정 투자 기준임.
- 2) ( )의 연도는 불변 가격 기준 연도임.

년대 후반 아세안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대부분 엔화 강세 등 국제 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라 이루어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에 편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90년대의 투자 증가는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자생적인 투자 확대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아세안 각국 정부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리고 있다.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94년 2월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 이후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발 노력에 힘입어 투자가 빠르게 신장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에 힘입어 80년대 말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 유발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간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계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OECD 국가로부터 기계류(SITC 71~74번) 수입 동향을 보면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체 현상을 보였으나 80년대 말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4~86년 기간중 동남아 지역의 기계류 수입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 기간에 연평균 10.7%의 마이너스 신장세를 나타내 수입 규모가 83년 71억 달러에서 86년에는 5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87년부터 동남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기계류 수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87년부터 93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93년 동남아 지역의 OECD 국가로부터 기계류 수입 실적은 총 22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일반 산업 기계가 수입 실적의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 산업 기계의 비중이 높았다.

나라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

<표 3> 동남아 지역의 기계류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1983	1986	1989	1993
원동 기기 및 설비(SITC 71)	1,429	1,412	2,801	5,729
특수 산업 기계(SITC 72)	2,672	1,571	4,477	7,352
금속 공장 기계(SITC 73)	333	309	878	1,617
일반 산업 기계(SITC 74)	2,660	1,762	4,194	8,171
기 계 류	7,094	5,054	12,350	22,869

자료: OECD, Trade Database.

주: 1) OECD 국가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 실적 기준.

산업분석

레이시아 등의 수입 시장 규모가 크다. 베트남과 브루나이의 경우 비록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90년대 들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90년 이후 매년 43%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그밖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들의 수입 신장세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SITC 3 단위 기준)로는 트랙터(SITC 722), 섬유·가죽용 기계(SITC 724), 금속 공구(SITC 736)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990~93년 기간중 연평균 10% 이상의 수입 신장세를 나

타내 대부분의 기계류 제품들에 대한 동남아 지역의 수입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증기 원동기 보일러(SITC 712), 종이·펄프 제조 기계(SITC 725), 회전 전기 장치(SITC 716) 등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93년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타 특수 산업용 기계(SITC 728), 내연 피스톤 기관(SITC 713), 가열 및 냉각 장치(SITC 741), 회전 전기 장치(SITC 716), 토목 공사용 장비(SITC 723)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품목의 연간 수입 실적은 15억 달러를 넘고 있다.

<표 4> 동남아 국별 기계류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규모		연평균 수입 증가율 (1990~93)
	1989	1993	
ASEAN 6 개국	12,191	22,508	16.6
말레이시아	1,747	4,066	23.5
브루나이	41	133	34.2
싱가포르	4,191	5,927	9.1
인도네시아	2,063	4,261	19.9
태국	3,123	5,862	17.0
필리핀	1,026	2,259	21.8
인도차이나 3 개국	83	313	39.4
라오스	11	9	-4.9
베트남	72	304	43.3
캄보디아	-	-	-
미얀마	76	48	-10.9
합 계	12,350	22,869	16.7

자료: OECD, Trade Database.

주: 1) OECD 국가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실적 기준.

■ 우리의 대응 방안

동남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화 됨에 따라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 활동이 앞으로도 활발히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 지역의 경제 전망이 계속 밝고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투자 활동이 계속 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동남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투자 지역중 하나가 될 것이다.

활발한 투자 활동은 곧, 투자에 소요될 기계류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의미한다. 이 점이 우리가 동남아 시장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자본재 산업 육성, 기계류 산업의 무역 수지 개선이라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동남아 기계류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 기계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다 동남아 현지 시장에 밀착된 사업 전략이 요구된다. 동남아 지역 10 개국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역을 통괄하는 사업 거점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보 수집, 시장 요원 양성, 현지 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망 거점으로는

남부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북부 지역에서는 방콕을 각각 꼽을 수 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자기 회사와 자기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현재 동남아 시장은 크게 일본, 화교, 현지인, 구미, 기타 등 5 개 그룹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화교 계통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데다 기계류 시장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등 구미 계통의 위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현지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우리가 KOTRA 지사망, 대사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판매원을 투입하여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 예상외의 큰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 진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동남아 기계류 시장은 중·저급 제품을 중심으로 자급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중·저급 품목의 생산을 동남아로 과감히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보다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정상 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의 잦은 개최를 통한 한국 붐의 조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불수출 자금 등 금융 지원의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동남아 기계류 시장 진출은 더욱 유망할 것이다.♣